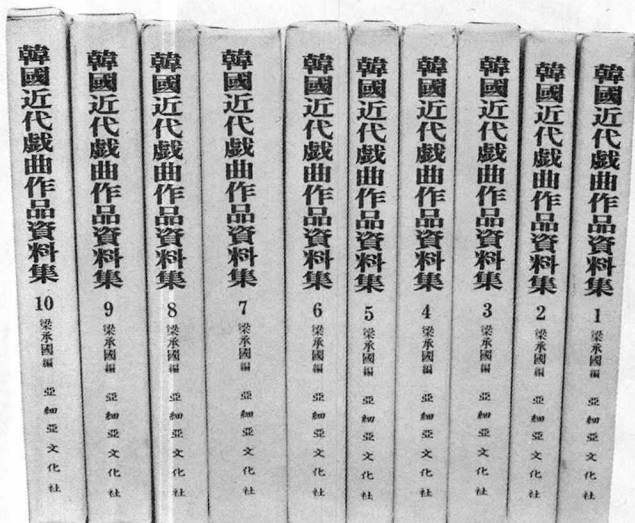


근대희곡의 전모 밝힌 영인본 텍스트

양승국 엮음 「韓國近代戲曲作品資料集」



해방전까지 각종 잡지들에 발표된 창작희곡 400여편을 한데 모은 이 책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희곡문학 연구의 충실한 텍스트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평가된다.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와 이인직의 「혈의 누」가 각각 근대시 및 근대소설의 효시라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 속하지만, 1912년에 발표된 趙一齋의 「病者三人」이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희곡이라는 사실은 문학전공자들에게조차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하다. 또, 劇藝術研究會나 土月會 같은 일제시대의 연극단체는 익히 알고 있어도, 정작 그런 무대를 통해 상연된 희곡작품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우리 학계의 희곡문학연구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진척돼 왔다는 사실의 한 반증일 수 있는데, 최근 그같은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희곡텍스트를 한자리에 집성한 전10권의 「韓國近代戲曲作品資料集」(양승국 엮음, 아세아문화사)이 간행돼 주목을 끌고 있다.

1910년대부터 해방 전까지 잡지에 발표된 창작희곡 및 시나리오 400여편을 영인해서 모은 이 자료집은 특히, 그간 미진했던 우리나라 희곡연구에 본격적인 활기를 수혈하는 한 계기가 되리라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몇몇 작가를 제외하곤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작가가 드물고 그나마도 한두편씩의 작품을 남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개 작품의 수집, 고찰이 쉽지 않았다”고 밝히는 편자 양승국씨(서울대 강사·국문학)는, 이 자료집이 “본격적인 희곡사, 혹은 나아가 연극사 서술까지도 가능케 하는 실증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엮여졌다”고 말한다.

「한국근대희곡작품자료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그 분량이나 대체적인 성격으로 보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될 수 있다.

첫째가 1920년대의 희곡(제1권~3권)으로, 이 시기는 신과극이 유행했던 1910년대를 前史的 배경으로 거느린, 東京유학생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근대희곡의 각성기로 규정될 만하다. 金永八(「밧처가는 처녀」 「訃音」)을 비롯해 趙明熙(「婆娑」), 金雲汀(「汽笛불 때」), 朴勝喜(「血肉」) 등이 창작일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고, 李箕永(「그들의 남매」), 洪思容(「할미꽃」), 兪鎮牛(「피로연」), 金東煥(「바지저고리」), 方仁根(「社會相」) 등의 작품도 발견된다.

둘째는 극예술연구회의 활동, 프로연극, 흥행극, 素人劇 등에 걸쳐 다양한 활기를 보인 1930년대(제4권~8권)로 이 시기의 작품이 해방 전까지의 창작희곡 중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柳致眞(「土幕」 「갈품은 月中仙」 등)과 蔡萬植(「落日」 「그의 家庭風景」 등)의 작품이 특히 눈에 많이 띄며, KAPF의 프로희곡으로는 宋影(「阿片쟁이」 「新任理事長」 등)의 작품이 두드러진다. 그밖에 李無影, 咸世德, 金松, 趙容萬 등도 적지 않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1935년 東洋劇場 개관을 전후해 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흥행극의 오락적 특성이 짙어지는 경향이 드러난다.

셋째는 이른바 「朝鮮演劇協會」의 결성으로 모든 연극이 일제의 국책 수행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1940년대의 희곡(제9권~10권)으로 기존의 극작가들 거의가 친일작품을 남기고 있다. 유지진, 함세덕, 朴英鎬 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 작가들인데, 이들의 작품은 그 내용의 치일성뿐 아니라 표기법상

도 日語를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한국희곡의 온전한 유산일 수 있겠느냐는 데에는 이론이 있겠지만, 희곡예술이 지닌 현상성이란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이 분류, 집성된 희곡작품들 모두가 문학으로서의 자족성을 확보하고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은 물론 아니다. 개중에는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작품들도 많다. 다만, 희곡작품의 수준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치가 희곡이 전제로 삼는 무대 상연의 당대적 수준에 대한 고려를

또한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자료집은 큰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公演日誌의 나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기존의 한국 연극사를 감안할 때, 이 책은 구체적인 작품의 텍스트를 우리 앞에 던져주고 그 의미를 캐문 게 한다는 점에서 희곡연구의 「과학」을 가능케 하고 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작품은 수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 목록들이나 자료집의 말미에 정리해 주고 있어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하다.

—강철주 기자

뉴스

‘어린이도서상’ 등 시상

‘어린이독서주간’ 맞아…독후감 모집도

제14회 어린이독서주간(5월1일~7일)을 맞아, 대한출판문화협회·계몽사 등이 마련한 각종 시상식이 다채롭게 베풀어졌다.

출협은 제10회 ‘한국어린이도서상’과 제7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시상식을 4월28일 오전 11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가졌다. 이번 어린이도서상은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에 「나무의 꿈」(예림당)의 작가 李圭瓌씨(41) ▲저작부문에 공상과학소설 「돌아온 지구소년」(가톨릭출판사)을 쓴 韓樂源씨(65) ▲기획·편집부문에 「학습만화 세계사」를 펴낸 계몽사(대표 金春植) ▲특별상은 「한국아동문학대표작선집」(전30권)을 발행한 웅진출판사(대표 尹錫金)가 각각 수상했다.

올해로써 일곱번째로 시상되는 과학기술도서상은 ▲저술상에 金東玟교수(58·서울시립대)의 「폐수처리」(청문각) ▲번역상에 梁東陽교수(50·고려대)의 「주거단지계획」(태림문화사)이 뽑혔으며 이밖에 ▲출판상은 여문각(대표 張錫泰)이 발행한 「복부초음파진단」(심찬섭 지음) ▲특별상은 한국과학기술재단(이사장 金基衡)이 발간한 「세계자연과학사대계」(전20권)와 현대해양사(대표 李鍾禮)가 발간한 「한·영·일 수산동식물 사전」에 주어졌다.

한편 계몽사는 제23회 ‘소천아동문학상’과 제8회 ‘계몽사아동문학상’ 시상식을 5월1일 오후 2시 강남구 역삼동 계몽문화센터 영아트홀에서 가졌다. 지난 1년 동안에 발표된 아동문학 작품 중 우수작에 수여되는 소천아동문학상의 올해 수상자는 동시집 「자연영 꽃밭」의 崔日煥씨(50·전남 목포). 한편 아동문학계의 신인등용문인 계몽사아동문학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장편동화·소년소설=김일환(53·서울) 「빛을 찾은 사람」 ▲단편동화(가작)=김영두(36·충남 부여) 「우물 속의 아이」, 김원경(21·서울예전) 「꼬마별 이야기」 ▲동요·동시=김남길(21·추계예술대) 「장날」의 12편 ▲동극=이혜원(28·방송구성작가) 「2월29일의 아이」

또 출협은 문공부·문교부 후원으로 ‘독후감상문’을 모집한다. 올해 27회째인 독후감상문모집은 국민학교부·중학교부·고등학교부·대학일반부로 나누어 총86명의 입상작을 선정, 각각 상장과 부상(책)을 수여하며, 지도교사상과 특별상도 마련된다. 마감은 9월5일. 문의처는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대한출판문화협회(735-2701~3).